

## 조선산업 구조조정과 지역사회 협력구조에 관한 연구 - 거제시 신현읍을 사례로 -\*

우연섭\*\*

### A Study on the Restructuring of Shipbuilding Industry and the Structure of Community Cooperation - The Case of Sinhyeon-eup in Geoje, Korea -

Youn-Sub Woo

**요약 :** 본 연구는 조선산업의 구조조정과 지역사회 협력구조 특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신현읍은 조선 대기업의 입지로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경험하였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구조조정을 경험한 일본의 경우, 분업화와 집적화를 통한 조선산업의 입지구조 재편과 기업-지방정부-지역주민의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다. 우리나라 조선산업 구조조정은 대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이 핵심이 었기 때문에 기업간·지역간 집적화나 협력구조가 정착되지 못하였다. 기업과 지역사회와의 유기적 협력구조가 대규모 구조조정 이전에 구축된 일본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나라 조선산업도시는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사회의 위기의식에서 기업-지역사회 협력구조가 출발하였다. 조선 대기업이 입지한 신현읍 지역은 중핵기업을 중심으로 구축된 생산영역간 연결고리는 확고하지만, 지역사회 협력구조는 미약한 현실이다. 기업, 공공기관, 지역주민, 지역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로컬 거버넌스로서의 지역사회 협력구조는 지역 사회의 응집력 강화뿐만 아니라, 산업도시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조선산업, 구조조정, 지역사회, 협력구조

**Abstract :** This study inquired the features of restructuring of shipbuilding industry and structure of community cooperation. The Sinhyeon-eup region has experienced rapid changes as a large shipyard location. Prior to Korea, Japan has developed the cooperation of company-community-residents relationships and the reorganization of location systems through division and accumulation system. The restructuring of shipbuilding industry in Korea have focused on the improvement of business environment. So they have not been efficiently settled in the accumulation and the cooperation structure between company and region. Japan established the organic cooperation structure of company and community before the large restructuring, while the shipbuilding industry city of our country commenced it with the crisis of community by the restructuring. In the Sinhyeon-eup region, The connecting ring among the production sections of a core company in center is established. However the structure of community cooperation is weak. The structure of community cooperation as local governance consist of company, public institution, local residents, and regional expert. This structure can be a rational channel in which it can not only strengthen the cohesion of the community, but also solve the present questions of the industrial city.

**Key Words :** shipbuilding industry, restructuring, regional community, cooperation structure

\* 이 논문은 200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4-037-B00119).

\*\* 日本立正大學客員研究員(Visiting Researcher, Rissho University) happywys@hanmail.net

## 1. 서론

산업환경이 보다 유연화되고, 자본의 무한한 이동이 가능한 세계화 경제에 있어서도 기업의 실제적 생산이 이루어지는 곳은 지역이다. 오늘날 기업의 생산전략은 기업 내부 측면이나 국가적 수준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단위에서의 노동, 환경, 생활 등과 관련된 부분도 중요한 대상이 되고 있다(Sayer and Walker, 1992). 기업 경영활동이나 국가 산업정책에 있어 지역의 역할이 부각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국가 경제발전의 관건이 되고 있으며(김선배 · 정준호, 2001), 기업의 발전은 지역사회와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통한 성숙한 생산환경 강화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기업의 지역전략을 재정립하고, 지역사회의 주체적 역량을 통한 지역차원의 발전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다.

산업지역은 기업 입지에 따라 인위적이고 급속하게 창조되는 ‘생산공간’과 인간 삶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생활공간’의 광범위하고 유기적 상호관계가 형성되는 장이다. 기업의 생산활동과 장소적 특성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상호 변증법적 관계(Yeung, 2001)에 있기 때문에 경제적 실체 그 이상으로 폭넓은 논의와 실천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회 · 공간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Yeung, 2000). 오늘날 지리학 연구는 경제 · 사회 이론과 인간의 실제 삶과의 공접면을 확장시킴으로서 과거 추상화되고 기하학적 공간 개념을 극복하고, 실체적 관점에서 현실공간을 인식해 나가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경제지리학에 있어서도 경제적 조직과 정치적 조정의 범위로서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MacKinnon, Cumbers and Chapman, 2002).

산업도시에 있어 기업과 지역사회의 관계에 대한 초기 연구는 기업 입지에 따른 지역사회 전반의 영향력 증대와 지역주민이나 지방정부의 기업에 대한 종속적 경향에 대한 연구가 중심이었다(和田八束, 1968; 館逸雄 編, 1981). 그 후 산업환경 변화와 시민의식 증대에 따라 기업과 지역사회는 공동운명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기업의 지역관리 차원에서 전개된 협력관계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都丸泰助 · 窪田曉子 · 園藤宏一 編 1987; Carroll, 1989). 최근에는 재구조화를 경험하고 있는 중화학공업을 대상으로 공장이전, 구조조정, 폐쇄

등에 따른 입지구조 재편이나 지역사회 대응전략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Stafford, 1991; 堂野智史, 1992b; 關滿博, 1996; Clark and Wrigley, 1997; 富樫幸一, 1998; 杉浦勝章, 2001; 麻鳩洋, 2004).

우리 나라의 경우,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사회 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연구는 지역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김창남, 1997), 지역 주력산업의 구조조정이 지역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임정덕, 1992), 구조조정 이후 개별 경제주체간 상호 신뢰와 협력에 대한 지역혁신론 관점에서의 연구(조형제, 2000) 등이 있다. 그리고 기업의 지역사회 협력활동에 대한 논의는 1990년 이후 경제 민주화와 더불어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협력활동이 경영전략의 부분으로 간주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찬반 논의(정구현, 1996)나 선진국 기업의 경험을 통한 우리 나라 기업의 사회공헌전략(이우광, 1997) 등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특히 IMF경제위기 이후 광범위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정부정책(김용구, 2000),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한 사회공헌활동(이상민 · 최인철, 2002), 지역사회 협력에 따른 기업이익의 실증적 분석(한동우 · 하연찬 · 문순영, 2003), 지역주민의 삶에 밀착되는 지역사회 협력활동(최숙희, 2004) 등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경제 특성이나 사회공헌활동 그 자체보다는 지리학적 입장에서 지역사회 구성주체들의 역할과 협력을 통한 기업-지역사회 협력구조에 대하여 논의하려 한다. 기업과 지역사회에 대한 지리학적 논의는 주로 산업화가 성숙된 산업도시를 대상으로 기업 입지가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신용철, 1995; 유성종, 2002),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경제의 발전전략(이철우 · 박양춘 · 박규택, 1999), 기업의 지역사회 협력방안(대구경북개발연구원, 1996; 이상석 · 이정록 · 김종성, 2001) 등이 중심이다. 이들 연구는 기업과 지역사회를 상호 수평적으로 연결하는 양방향 구조가 아니라, 생산영역에 중심축을 두고 지역사회의 변화나 기업의 지원에 대한 지역사회의 수동적 대응에 대한 논의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기업입지에 따른 지역사회의 주체적 역할이나 협력관계에 대한 심층적 분석에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급격한 산업환

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진행되는 구조조정은 기업의 생산환경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사회에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영향을 준다. 이에 따른 충격을 조정·완화 할 수 있는 조절장치로서의 지역사회 협력구조는 지역 사회 활성화의 토대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조선산업 구조조정 특성과 지역사회 구성주체들의 역할과 상호 협력구조 특성을 고찰하는데 있다.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사회의 생산조건을 재구성해 나가고 있는 산업도시에 있어 기업-지역사회 협력구조에 대한 논의는 산업도시 공동체의 장기적 발전 방향을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첫째, 조선산업 입지에 따른 지역변화와 조선산업 구조조정 특성을 고찰하기 위하여 통계자료 검토와 문헌연구를 실시하였다. 둘째, 지역사회 공동체를 구성하는 핵심적 행위주체(기업, 공공기관, 지역주민)의 역할 특성과 한계, 상호관계와 협력수준, 바람직한 지역사회 협력구조 등을 고찰하기 위하여 기업, 공공기관,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에 대한 현지관찰과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 2. 연구지역 특성

본 연구의 대상인 신현읍은 거제시의 경제와 행정 중심지로서 거제도 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현만을 중심으로 세계적 조선기업인 삼성조선소가 입지하고 있다(그림 1). 특정 지역에 대기업이 입지하게 되면 대기업은 지역의 중심 역할로 성장하며, 지역사회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특이한 공간이 창출된다(關滿博, 1996). 한적한 시골 어촌에 불과했던 신현읍도 조선 대기업이 입지하면서 경제, 인구, 토지이용, 문화, 교육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급격한 변화가 나타났다.

거제지역에 있어 조선산업이 차지하는 경제적 비중은 고용, 생산, 수출, 소비<sup>1)</sup> 등 산업구조 전반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표 1). 그리고 조선산업 입지계수(L.Q.)가 29.2로 매우 특화되어 있으며, 양대 조선소가 직·간접적으로 차지하는 생활영역 비중도 70~90% 정도로 매우 높다(한표환, 1999).

신현읍 인구는 조선 대기업의 경영환경과 조선경기 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성장, 감소, 조정, 안정화 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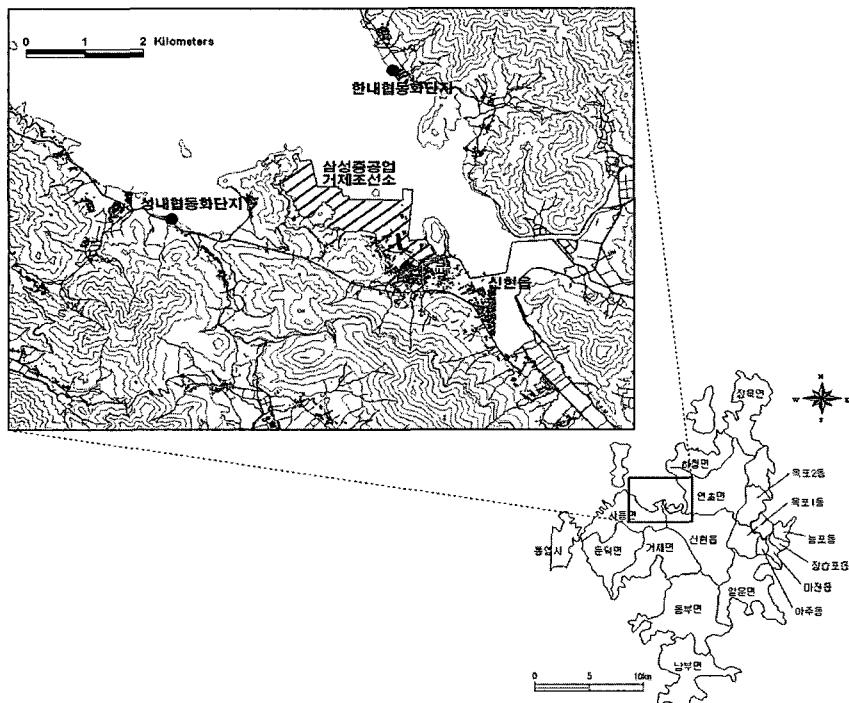


그림 1. 연구지역

표 1. 거제지역 제조업체 등록 현황

(단위 : 빈도(%))

공장	계		대기업(종업원 300명 이상)		중소기업(종업원 300명 이하)	
	업체수(개)	종업원(명)	업체수(개)	종업원(명)	업체수(개)	종업원(명)
규모별	251(100.0)	29,577(100.0)	2(0.8)	16,740(56.6)	249(99.2)	12,837(43.4)
	계		조선관련업체		농수산가공업	
업종별	업체수(개)	종업원(명)	업체수(개)	종업원(명)	업체수(개)	종업원(명)
	251(100.0)	29,577(100.0)	155(61.8)	24,890(84.2)	45(17.9)	2,134(7.2)
대규모 공업단지	입주업체	주요생산품	부지(천m <sup>2</sup> )	종업원(명)	생산액(억원)	수출액(100만불)
	한국석유공사 거제지사	원유비축	2,930	47(0.2)	-	-
대우 조선해양	삼성 중공업	선박 및 해양플랜트	3,501	6,314(21.3)	33,193(46.1)	2,533(46.7)
	대우 조선해양	선박 및 해양플랜트	6,167	10,426(35.3)	33,000(45.8)	2,582(47.6)
						지방세(억원)
						125.8(13.3)

자료 : 거제시 통계연보(2003), 거제시청 자치정보과.

주 : 대규모 공업단지의 ( )는 거제시 전체에 대한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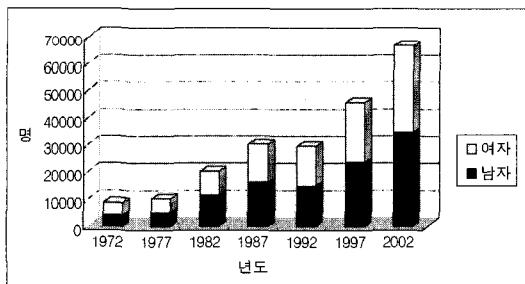


그림 2. 신현읍 인구 추이

자료 : 거제(군)시 통계연보(1973-2003).

계를 경험해 왔다. 조선소 건설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1980년대는 인구를 비롯한 지역사회 전반의 변화가 가속화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조선산업의 국제적 불황과 전반적 구조조정으로 삼성조선을 비롯한 협력업체의 고용조정과 파산 등으로 인구가 감소하였다. 그 후 1990년대 중반부터 조선산업의 안정적 성장과 함께 제3차 산업의 동반성장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그림 2). 신현읍 인구는 2005년 2월 현재 7만 6,035명(2만 4,363가구)이고, 조선산업의 노동구조 특성상 남자의 비중(51.8%)이 여자(48.2%)보다 조금 높다. 외지인 비율

(70%이상)이 높은 신현읍은 문화적으로 외부로부터 유입된 문화가 지역의 전통문화를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역의 상위 소득계층은 외지로부터 유입된 대기업 간부사원이나 신흥 서비스업주들이 차지하는 반면, 토착 주민은 노동자로 생활하거나 소규모 상업이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신현읍에 있어 계층간·지역간 갈등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상호 협력하는 동반자 관계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김상대, 1999).

### 3. 조선산업 구조조정과 지역사회 협력구조의 특성

#### 1) 일본의 조선산업 구조조정

기업은 하나의 유기체로서 입지, 적응, 성장, 구조조정(혹은 쇠퇴) 과정을 경험한다. 기업의 성장과 발전은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구조조정을 통하여 가능하다. 일본 조선산업은 1960년 이후 세계적 기술개발(자동용접기술, 블록건조공법)이나

자본과 설비의 대형화를 바탕으로 VLCC나 ULCC<sup>2)</sup> 등 대형선을 중심으로 급성장하였다. 이 시기 대자본은 수출지향의 대형선을, 중소자본은 국내선 중심의 중소형선을 건조하는 선종·선형 분할 생산체계가 성립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석유파동에 따른 수요량 감소와 선종의 다양화·소형화 추세로 대형 조선소들이 중소형 선박을 적극 수주하면서 ‘생존 분할구조’<sup>3)</sup>가 붕괴되었다(村上雅康, 1985). 대자본과 중소자본간 과당경쟁에 따라 일본 조선산업 전조체계는 국가주도의 1차 구조조정(1980년)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대도시와 그 주변의 중소형 조선소 철수가 진행되었고, 수요변동도 어느 정도 안정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부터 선택적 수주, 수주 취소, 엔고 등으로 수주량이 급감하기 시작하여 1987년에는 신조선 건조량이 1970년 이후 가장 낮은 293만GT<sup>4)</sup>로 감소하였다(堂野智史, 1992b).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1988년 ‘특정선박 제조업 경영안정 임시조치법’에 의거 전체 생산능력의 30%를 감소하는 2차 구조조정을 단행하였다(堂野智史, 1992a). 그 결과 대형 조선소와 중소업체 간 제휴나 계열화를 통한 선종·선형별 분업 생산체계가 강화되었고, 유력업체의 전조능력을 확대·집중화하는 전조체제가 형성되었다. 집적화와 분업화를 지향한 국가주도의 두 차례 구조조정 이후 일본의 조선산업 공간구조는 대도시 주변에 입지하는 중대형 조선소는 부분적으로 잔존하였지만, 소형 조선소는 대도시 주변에서 전면적으로 철수하여 세토나이카이(瀬戸内海)를 중심으로 유력 중소조선소들이 집중 입지하게 되었다.

1990년대 들면서 버블경제 붕괴에 따른 장기 불황과 엔고현상에 따른 국내·외 산업환경 변화는 일본 경제의 전반적 구조조정을 가속화시키는 자극제가 되었다.<sup>5)</sup> 개별기업은 과잉설비와 수요감소 조정을 위하여 공장의 폐쇄, 이전, 축소, 합병, 제휴 등 다양한 구조조정이나 경영혁신전략과 함께 해외투자, 부품의 해외조달, 완제품 수입, 신규사업 전환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 구조의 재편을 가속화시켰다(杉浦勝章, 2001). 이 과정에서 공간적으로 전통적인 제조업 집적지역이 와해되거나 재조정되는 입지적 변화가 나타나기도 하였다(小田宏信, 1998). 1956년 이후 세계 1위를 고수해 온 조선산업도 1990년 이후 버블경제 붕괴와 글로벌 경제의

가속화로 부품 공급루트나 생산거점이 한국이나 중국 등으로 이전하면서 생산체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일본 조선업계는 국가적 차원이 아닌 업계 내부적으로 대형업체가 중심이 되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체간 업무제휴나 통폐합<sup>6)</sup>을 가속화함과 동시에 인력감축, 분사화, 조업단축 등 축소지향적 내부 구조조정<sup>7)</sup>을 시도하고 있다(최봉, 2001).

## 2) 우리 나라의 조선산업 구조조정

우리 나라 조선산업은 경쟁력 강화와 경영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세 차례에 걸쳐 구조조정을 경험하였다(표 2). 일제 식민지 경제하에서 파행적으로 시작된 근대 조선산업은 해방 후 정치적·경제적 혼란기를 거쳐 1960년대 조선산업 진흥정책으로 국제적 불황구조 하에서도 급속히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1976년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와 부실기업 정리를 목적으로 ‘해운·조선 종합육성방안’과 ‘선복증강계획’ 등을 통하여 영세 중소형 업체를 일차적으로 조정하였다. 그 결과 중견조선소로의 합병에 따른 경영 합리화로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었고, 국가공업단지를 중심으로 대우나 삼성 등 대그룹의 조선산업 진출에 토대를 이루게 되었다. 1, 2차 석유파동 여파로 1980년대 세계 해운·조선시장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대형조선설비에 막대한 투자를 한 우리 나라 조선산업은 물량확보를 위한 저가수주로 경영수지가 악화되었다. 그리고 1980년대 중반이후 대형 조선사를 중심으로 초기단계의 금융비용 부담, 격심한 노사분규, 원화절상 가속화에 따른 감가상각 상환문제 등에 직면하면서 정부는 ‘조선산업 합리화조치’를 단행하였다. 조선산업 합리화조치(1989~1993년)는 생산성 향상과 경영 안정화를 위하여 신조선설비 동결, 저선가 수주 회피, 과당경쟁 방지, 계열기업 합리화, 경영 합리화, 재무구조 개선 등을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은 일부 계열사 통폐합 등 자구노력을 전제로 대출금 상환 유예와 신규대출 등이 이루어졌고, 한라중공업과 한진중공업에는 부실기업 인수 대가로 세계 혜택이 주어졌다(한국조선공업협동조합, 1998). 이 조치는 세계 조선시장이 장기침체에서 벗어나 호황기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기업의 경영 안정

표 2.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구조조정과 입지 특성

	기반강화기(1980년 이전)	성장기	
		양적 성장기(1981-1998년)	질적 성장기(1997년 이후)
조선시장	(건조량) 소폭증가 (선형) 소형, (선종) 목선	대형-증가, 중소형-감소 중대형, VLCC	중대형-급증 대형, ULCC, 특수선, 여객선
경쟁관계	경쟁구조 소형자본 : 소형자본 대형자본 : 중소자본	경쟁구조 대형자본 : 대형자본	세계적 경쟁구조 성립 한국 : 일본(중국의 부상)
조선정책(구조조정)	제 1차 구조조정 (해운·조선종합육성방안; 1976)	제 2차 구조조정 (조선산업 합리화조치; 1989-1993)	제 3차 구조조정 (IMF 경제위기; 1997)
생산체계	• 중형조선소의 합병(대한·동양·안전조선→대동조선 설립, 공홍·경남·국동조선→신경남조선 설립, 협성·제일·강원→합병회사 설립)	• 중대형 조선소의 매각과 합병-대우조선의 계열사 통폐합, 대한조선공사, 코리아타코마-한진그룹 인수, 인천조선-한라그룹 인수 • 대형 조선소- 사내하청 증가	• 국내 대기업간 협력관계 진전, 분사화·아웃소싱 확대 • 대우조선 워크아웃 • 선박엔진 부분 3사 통합→HSD 엔진 • 삼성중공업-상용차·발전설비·중장비부문 매각,
입지·배치	• 대형-대형조선소 건설(1970년 이후), 대규모 국가공업 단지 • 소형-전통적 수산중심지	• 중대형-부산·경남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 소형-동해안지역 조선소의 철수, 소비시장에 근접한 황·남해안을 중심으로 입지. • 중형조선소의 철수.	• 대형 조선소 주변의 협력업체 증가 • 조선관련기능(대기업, 협력업체, 조선기자재업체, 연구기능 등)의 동남권 집중 강화

자료 : 한국조선공업협회, 1995; 한국조선공업협동조합, 1998; 우연섭, 2004; 한국조선공업협회 홈페이지.

화와 안정적 조업활동을 지원함으로서 조기에 경영수지 흑자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에 취해진 조치로 평가되었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중대형 조선소는 부산·경남을 중심으로 하는 동남권지역에 집중하게 되었고, 소형 조선소는 동해안 지역 조선소의 철수와 함께, 소비시장에 근접하고 산업환경이 유리한 황·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목선 위주에서 철선이나 FRP선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우리 나라 경제가 IMF 관리체제로 돌입하기 시작한 1997년 이후 조선산업은 급격한 환율상승에 따른 대량 수주로 업계의 경영환경이 크게 개선되었지만, 추가설비 투자보다 보유설비 조정을 통한 축소지향적 내부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다. 우선 대우중공업은 1999년 대우그룹의 부도여파로 워크아웃이 진행되어 조선사업부문이 그룹으로부터 분할되어 ‘대우조선해양주식회사’로 재출범(2000년)하였다. 삼성중공업은 업종전문화와 과잉투자 조정을 위하여 상용차사업은 삼성상용

차(1997년), 중장비사업은 스웨덴 볼보사(1998년), 지게차사업은 미국 클라크사(1998년)에 매각하고, 발전설비사업과 선박용엔진사업을 각각 두산중공업과 HSD엔진에 이관(1999년)하였다(삼성중공업). 이 과정에서 조선업계는 국내 경쟁기업간 정보·기술교류, 공동연구·공동개발·공동구매, 과당경쟁 방지 등 협력환경을 조성하기 시작했다. 지리적으로는 동남권을 중심으로 조선관련기업(조립대기업, 협력업체, 기자재·기계·철강업체 등), 연구기능, 관련 공공기관 등이 협력 파트너로서 집적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구조조정은 생산비 절약과 경기변동에 따른 인력수준의 탄력적 조정을 위하여 선각, 의장, 도장 등의 공정을 중심으로 임가공형 협력업체의 필요성이 증가되면서 지역 협력업체가 급격히 증가<sup>8)</sup>하게 되었다.

집적화와 생산체계 재편을 목적으로 진행된 일본의 조선산업 구조조정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경쟁력 약화, 과잉투자·과잉설비, 경영위기, 외환위기 등

에 따른 조선산업과 조선 대기업의 생존을 위한 것이 핵심이었다. 그리고 구조조정을 통하여 대기업과 중소 기업간 분업적 계열관계를 발달시킨 일본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 나라 조선산업은 기업간·지역간 분업 생산체계가 확고하게 형성되지 못하였다.

### 3) 일본 조선산업도시의 기업-지역사회 협력구조

대기업의 구조조정은 공장의 이전이나 설립 혹은 고용의 증대나 감소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영향을 준다. 특히 단일 기업이나 산업으로 특화되어 있는 지역의 경우, 구조조정에 따른 부차적 승수효과가 발생하여 지역경제 회복을 더욱 어렵게 할 수도 있다(富樫幸一, 1998).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의 대외 경쟁력 확보나 생산비 절약을 목적으로 지역내 생산기반이 확대되면, 지역내 고용이 증가되면서 기업의 영향력이 증대될 수 있다. 이에 비해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공장 이전이나 감원 등은 지역경제의 공동화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지역사회 협력구조가 잘 구축되어 있다면, 충격을 조정 혹은 완화 할 수 있다. 지역내 생산기반 증가의 경우, 모기업, 협력업체, 지방정부, 지역주민 간 생산적 협력관계를 통하여 상승효과를 창출할 수 있고, 공장 이전이나 감원의 경우 또한 대체산업 투자, 이전에 따른 고용승계, 공장부지의 공영개발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의 충격을 조정할 수 있다.

기업과 지역사회와의 관계는 경제 발전정도나 사회 구성원의 문화적 특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산업화의 역사가 비교적 길고 조직문화가 발달되어 있는 일본의 경우, 1960년대 이후 대두된 공해문제를 기업과 지역주민이 동반자적 관계에서 해결하는 과정에서 기업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다(김성식·오정훈, 1995). 이에 따라 1980년대 조선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사회 충격을 성숙화된 지역사회 협력구조를 통하여 완화·조정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 내부적 구조조정을 촉진시킬 수 있었고, 지역주민의 시민의식도 크게 함양되는 상생의 교훈을 얻게 되었다.

오늘날 일본 대기업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바탕으

로 지역기업과의 제휴 강화, 노조의 정치참여 지원, 주민참여기구의 제도화, 기업의 사유지를 활용한 도시재개발 등 지역사회의 구조 속에서 기업의 비즈니스 활동을 확대해 나가는 소위 ‘포스트기업도시’를 위한 비전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염미경, 1998). 대기업에 의지하여 기형적으로 발전해온 조선산업도시도 광범위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약 80년에 걸친 산업도시의 상식과 족쇄를 해체하는 새로운 작업들을 추진하고 있다(關滿博·岡本博公編, 2001). 조선 대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설비나 고용구조의 변화는 역내 협력업체에 대한 전략변화로 나타났다. 조선 대기업은 협력업체에 대한 인센티브와 패널티 부여를 통한 발주루트의 선택과 집중 전략을 시도하고 있다. 기업간 관계 또한 단순한 물자를 거래하는 하청관계가 아니라, 자본, 노동력, 기술, 정보 등을 최대한 공유하는 상생관계를 추구하고 있다. 특히 완제품의 구상이나 기획단계에서부터 협력업체의 참여를 유도하여 혁신적 아이디어를 제안 받고, 정보를 상호 교류하는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지역 협력업체는 거래 모기업을 단순한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협력의 파트너라는 인식의 전환을 통하여 조직의 슬림화, 국내·외 시장개척, 정보화와 기술개발, 자립형 기업육성 등 적극적인 생존전략을 시도하고 있다(關滿博·岡本博公編, 2001). 지역 협력업체는 또한 구조조정을 경험하고 있는 대기업의 일방적 의존체제에서 점차 벗어나 다른 조선소에 사내 사업소를 개소하거나 지역사회와 함께 자립화의 길을 적극 모색해 나가고 있다(佐藤明, 1997). 노동조합의 경우도 임금이나 근로조건과 같은 전통적 이슈에서 벗어나 고용안정, 지역정치 참여, 지역 협력사업, 경영 참여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안정적 생산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는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구조개혁 특구제도’(2003년 4월 일차적으로 전국 57개 지역 지정)를 통하여 국제물류, 산학연계, 교육, 마을 만들기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다(龐鳩洋, 2004). 지방정부나 지역주민도 지역기업의 생산활동 지원과 함께, 지역차원의 새로운 고용창출과 미래지향적 지역산업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극단적인 경우를 대비하여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사회 충격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재활성화를 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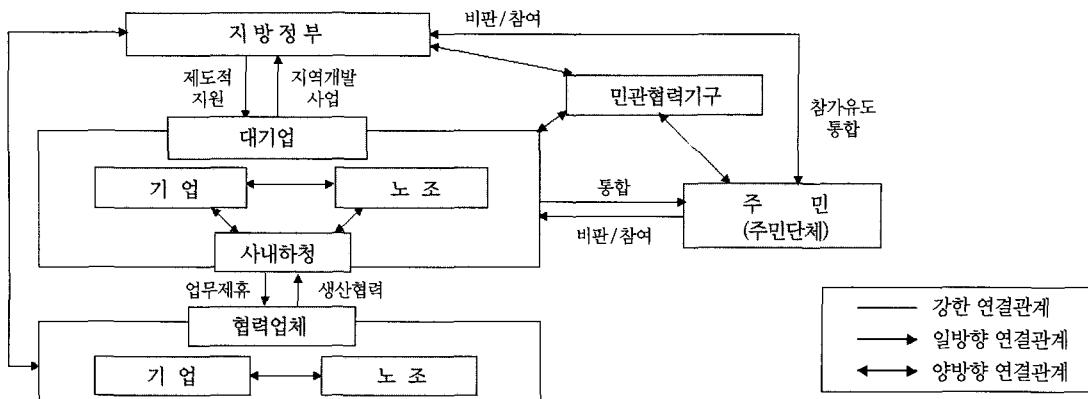


그림 3. 일본 산업도시의 지역사회 협력구조

자료 : 염미경(1998)을 참고하여 재구성함.

한 지역차원의 다양한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있다. 실제로 대기업의 강력한 구조조정에 대한 대응과 역내 협력업체의 체질 개선을 위하여 기업, 노동조합, 지자체가 공동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노동력 재배치, 인재활용, 신규산업 유치 등을 실현하는 사례도 있다(富嶋幸一, 1986). 전반적으로 일본 산업도시 공동체의 특성은 대표적인 행위주체간 권력의 교환관계가 수평적이고 양방향적일 뿐만 아니라, 개별 주체의 내부시스템도 민주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그림 3). 특히 주목되는 민관협력기구는 구조조정과정에서 기업, 정부, 주민 간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조정자적 기구로서 지역사회 발전구조와 상호 갈등을 제도적으로 중재·조정하고, 지역사회 공동체의 이해관계를 통합할 수 있는 장이 되고 있다(Jezierski, 1990). 일본의 산업지역은 기업 구조조정 이전에 뿌리내린 지역사회 협력구조가 지역사회 충격을 완화시켜 지역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이는 다시 지역산업 경쟁력을 활성화시키는 메커니즘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일본의 사례는 산업화의 역사와 발전정도, 생산프로세스, 주민특성 등에 있어 우리나라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산업화 초기부터 일본의 자본과 기술 투자가 이루어졌고, 국가 산업정책, 산업발전 궤적, 제도적 환경 등이 일본과 유사한 우리나라 산업환경(박번순, 2004)에 있어 일본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 4. 우리나라 조선산업도시의 지역사회 협력구조

##### 1) 거제시 신현읍에 나타난 기업-지역사회 협력구조의 특성

광범위한 전후방 관련산업과 대량의 노동력을 바탕으로 초대형 구조물을 생산하는 조선산업은 대규모 건조설비가 고정적이고,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탄력적 수급조정이 어렵기 때문에 타산업에 비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크다(堂野智史, 1992a). 1980년대 후반 조선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사회 충격을 경험한<sup>9)</sup> 신현읍은 조선 대기업과의 상호 유기적 네트워크를 통한 완충적 조절장치가 무엇보다 요구된다. 조선기업 또한 팀제로 운영되는 조선공정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활성화를 통한 귀속의식이 강한 노동력을 재생산하고, 지역 조직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기업의 생산 조직과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날 우리나라 조선산업 구조조정 특성은 공장이전이나 고용조정 등 극단적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일본의 경우와는 달리, 생산공정 유연성과 비용절감을 위한 대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지역 협력업체의 증가와 함께 지역내 생산조건이 재구성되고 있는 단계에 있다. 지역사회 협력구조 또한 구

조조정 이전에 구축되어 조조정 과정에서 기업과 지역사회가 상생의 교훈을 경험한 일본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 나라 조선산업도시의 경우 전반적 사회 민주화와 조선 대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 지역주민, 지방정부의 위기의식에 의해 지역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사회 협력구조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특히 조선산업도시의 경우 산업화 과정에서 수직적·수평적 하청구조가 안정화 되어 있어 지역사회 내부의 유기적 협력관계가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는 자동차나 철강산업도시에 비해, 관련산업의 지역내 집적 정도가 낮고 지역사회의 역량부족으로 지역사회 협력구조가 미약하다.

신현읍에 있어 지역사회 핵심주체의 역할특성과 이를 통한 상호협력의 정도와 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중앙정부는 산업화 초기부터 조정자적 입장에서 기업의 생산활동에 우호적 환경을 조성해 왔다. 조선산업의 진입과 성장은 국가 주도하에서 국가와 대기업의 개별적 관계를 통하여 결정되었다. 따라서 조선기업의 발전과정은 경쟁구조 하에서의 자생적 질서보다는 개별기업의 상황이 국가와 어떠한 관계를 맺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었다(김주환, 1999). 이러한 결정은 개별 조선소의 성장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영, 노동, 환경 등의 위기극복과 기업성과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지역 생산부문의 제반 문제를 해결하는 파트너로 기업이 입지하는 지역사회 보다 중앙정부를 선호해 왔다.

둘째, 최근 지방자치제도가 성숙되고 조선대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 협력업체가 증가되면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거제시는 지역경제의 중추인 조선산업의 정책적 지원체계 강화를 위하여 '조선산업지원팀'을 신설(2003년 6월)하였다. 이 팀은 4명(과장 1명, 계장 1명, 직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선 대기업의 간접 지원, 조선관련 협력업체의 창업 지원, 공장설립·증설, 경영·기술지원, 공단조성, 노사안정 등에 관한 민원업무를 전문적이고 장기적인 정책과정을 통하여 지원하고 있다(거제시청 면담자료). 그리고 거제지역은 1990년 이후 조선경기 호황과 대기업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진행된 분사화나 아웃소싱 확대에 따른 지역내 협력업체 증가로 새로운 부지나 설

비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있다. 이에 대해 거제시는 '도시계획조례'와 '융자지원조례' 등을 개정하여 조선소 주변의 사동면, 연초면, 하청면 지역에 '조선산업협동화단지' 조성에 적극 협력하였다.<sup>10)</sup> 그러나 지방정부의 역할 역시 대기업의 생산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각종 민원문제를 지원·중재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셋째, 과거 정책의 대상으로만 간주되었던 지역주민도 사회 민주화에 따른 시민의식 성숙으로 점차 정책의 주체로 등장하고 있다. 오늘날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는 자발적 시민단체의 등장으로 지역주민의 요구가 점진적으로 조직화되어 가고 있다(대구경북개발연구원, 1996). 거제지역을 대표하는 시민단체는 경실련, 환경운동연합, 초록빛깔사람들, YMCA, YWCA, 거제포럼, 청실회, 이웃사랑실천협의회 등이 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지역주민의 경험과 지식, 신념과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입장에서 지역산업과 관련된 여론을 선도하고 문제해결에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 거제환경운동연합은 밸러스터<sup>11)</sup> 문제해결, 환경호르몬을 유발하는 유해성도료(TBT) 사용 금지, 폐인트 분진 방지를 위한 옥내 작업비중 강화, 오폐수 처리 감시, 협력업체의 환경문제 등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의 환경문제 인식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거제환경운동연합 면담자료). 거제지역에서 활동하는 대부분의 시민단체는 개별단위로 활동하고 있으며, 기업의 생산활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에 대한 실천적 접근보다는 예방교육, 재발방지약속, 계몽교육, 봉사활동 등을 중심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넷째, 대기업 중심 산업도시의 지역사회 발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행위주체는 역시 대기업이다. 따라서 특정 대기업의 이념, 문화, 생산전략, 조직특성 등은 지역사회에 그대로 반영된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지역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삼성조선은 조직 내부에 지역사회 협력활동 전담부서를 두고, 경영전략 수립단계부터 지역사회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협력관계를 모색해 나가고 있다. 삼성조선은 사회봉사단을 중심으로 지역사회봉사, 환경정화, 시설봉사, 재가봉사, 구호활동, 청소년선도, 장학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 '섬마을 사랑 만들기' 봉사활동은 거제지역 관내의 섬마을과 소외된 오지마을을 찾아

지역사랑을 실천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주민의 애로사항과 생활불편사항을 중심으로 다양한 단체로 구성된 봉사팀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참여한다. 봉사활동의 진행과정은 우선 시청과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현지 마을주민과 함께 생활환경 실태조사를 통하여 개인 수혜자와 마을 전체의 구체적 봉사활동 내용을 결정한다. 필요한 인력이나 기술지원 범위는 삼성조선 전문봉사단체와 계열 봉사단체, 거제지역 봉사단체와 협의를 통하여 조정한다. 참여단체는 삼성조선, 삼성증권, SDS, 삼성전자, 에스텍 등 계열사로 구성된 전문봉사팀과 임직원 가족, 거제시 자원봉사협의회, 거제시청, 면사무소, 거제시 기술봉사단, 이웃사랑실천협의회 등 민관단체들로 구성되어 있다(삼성조선 사회봉사단). 이러한 대기업의 지역사회 협력활동은 지역주민에 대한 호감이나 행정 당국의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뿐만 아니라, 임직원의 조직 활성화를 통한 생산공정 효율성에도 기여하고 있다.

그리고 삼성조선은 지역 협력업체에 대하여 '협력업체지원팀' 산하의 '사회운동파트'에서 지도요원을 직접 파견하여 기술지도, 공정지도, 품질지도 등 생산과정 전반에 걸쳐 상주 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지역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사내 훈련원을 통한 각종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생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정적 거래를 보장해 주며, 운영자금 지원이나 모기업 사원아파트

입주 등 복리후생까지도 지원하고 있다(우연섭, 2004). 그러나 이들 협력업체는 조선 대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비용절감, 고용문제, 환경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설립된 것이기 때문에 임금이나 환경 등에 있어 부차적 문제를 양산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 그리고 지역 협력업체는 전문적인 조선기자재업체와는 달리, 모기업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전속형 하청구조가 일반적이므로 모기업의 구조조정이 광범위한 공간구조에서 가속화될 경우, 직접적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비하여 지역업체의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는 모기업과의 제휴 확대, 지역기업간 네트워크, 새로운 시장개척, 기술개발 등을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연구지역의 지역사회 협력구조를 종합적으로 고찰해 보면, 중핵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생산영역(모기업-사내업체-사외업체) 수직적 연결고리는 확고하지만, 지역 협력업체간 수평적 연결관계는 거의 형성되어 있지 않고 있다. 생활영역(지방정부-시민단체-지역주민)은 개별주체의 내부 역량도 한계가 있고, 각 행위주체간 권력관계도 불균형적이거나 불확실한 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비교적 느슨한 연결고리로 대규모 생산영역에 관계하고 있다. 그리고 생산영역과 생활영역간 유기적 연결관계도 아직은 초보적 단계에 있다(그림 4). 이에 따라 현재의 느슨하고 단절된 지역사회 협력구조 하에서는 강력한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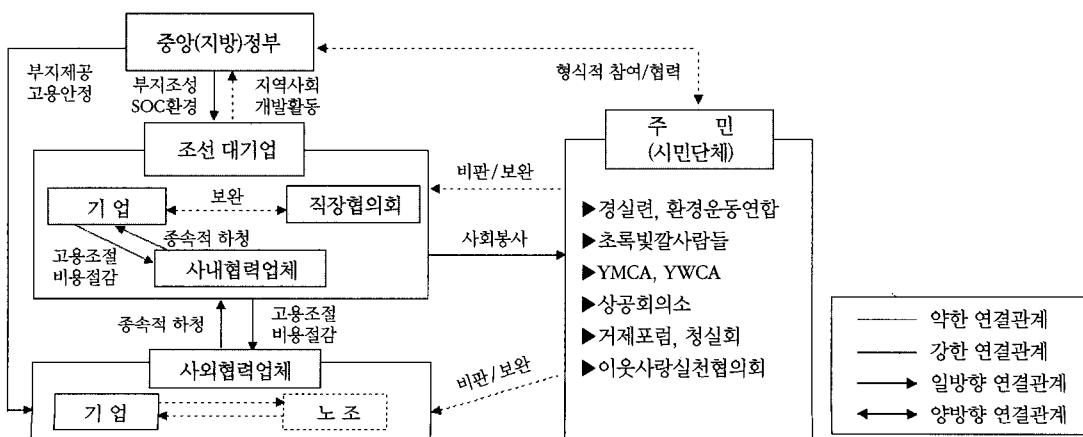


그림 4. 신현읍 지역의 지역사회 협력구조

시설의 이전이나 대규모 인력의 조정 과정에서 지역의 발언권이 최소화될 수밖에 없다. 기업 또한 지역사회와의 역량을 생산 효율성에 연결시키지 못함으로서 경쟁력 확보에 장애가 될 수 있다. 단일산업이 지배하는 신현읍에 있어 지역사회 협력구조의 발전 가능성은 현재 조선대기업의 자발적 봉사단체가 중심이 되고 공공기관, 시민단체, 기업,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고 있는 지역사회 봉사활동에서 찾을 수 있다. 지역사회문제 해결에 유효한 자본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는 지방정부와의 협력범위가 확대될 수 있고, 재정이나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민단체도 기업과의 공조를 통하여 성숙한 시민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 2) 조선산업도시의 바람직한 지역사회 협력구조

우리 나라의 대기업 주도형 산업도시는 일반적으로 기업문화가 시민문화를 암도하면서 지역주민의 의지에 의한 자주적 도시발전이 되지 못하고, 기업의 경영 전략이나 산업환경 변화에 종속되는 기업의 의존형 구조를 가지고 있다. 오늘날 기업간 경쟁은 단순한 생산부문간 경쟁이라기보다는 생산환경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구성체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시스템간 경쟁구조라 할 수 있다. 특히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지적 범위에서의 분사화나 아웃소싱 등 수직적·수평적 네트워크가 확대되면서 지역차원의 가치창출활동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지역사회 구성원과 대규모 기업조직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적 자본의 축적이 산업도시 경쟁력의 핵심이 되고 있다(구승희 역, 1996).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발전의 해제모니를 쥐고 있는 대기업의 경영자원을 활용한 지역사회 참여와 지역화 전략을 통한 적극적 권력 행사방식이 요구된다. 지역주민 또한 지역社会의 미래를 특정 대기업에 전적으로 위임한다는 것은 리스크가 크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지역산업의 비즈니스 범위를 확대하는 포스트기업도시를 위한 장래비전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기업-지역사회 협력구조는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사회 충격을 완화하고 산업도시 공동체를 기업과 지역社会의 자주적인 에너지에 의해 발전시킬 수 있는 하나의 중심축이 될 것이다.

발전적 산업도시는 과거 산업화 사회의 공간구조인 생산권과 생활권의 분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와 기업의 융합구조로 나아가야만 지역의 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다(전영옥·박재룡, 2004). 산업도시의 경쟁력은 새로운 기업의 유치, 첨단산업단지나 산업클러스터의 조성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의 핵심주체인 기업, 공공기관, 지역주민 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할 수 있는 협력구조의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역사회 협력구조는 지역주민, 공공기관, 기업, 지역전문가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로컬 거버넌스적 조직으로서 생산영역과 생활영역의 다양한 요구를 집합적으로 수렴하여 지역사회 공동체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사회적 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다. 나아가 지역사회 구성원의 제도적 참여과정은 지역수준의 핵심자원 재생산을 통한 자족적 산업도시로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다.

## 5. 결론

세계화와 함께 지방화의 물결이 거세지고 있는 오늘날 지역사회는 변화와 도전, 그리고 새로운 기회에 직면해 있다. 경제정책과 관련된 중앙정부의 역할이 감소되고,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와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지역이 경제정책의 전략적 단위로 부상하고 있다. 단일 대기업이 입지한 산업도시에 있어 해당기업의 구조조정은 지역경제의 고용, 관련산업, 재정 등에 있어 중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산업의 구조조정과 그에 따른 기업(생산영역)과 지역사회(생활영역)의 협력구조 특성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의 시장역 압적 지도를 통하여 신현읍 지역에 대규모 조선소가 입지하면서 농수산업중심의 사회구조는 제조업 중심으로 급속하게 재편되었고, 조선 대기업의 영향력이 확대되었다. 신현읍은 외지인 비율이 높고, 조선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으며, 조선경기나 대기업의 경영환경 변화에 지역사회 전체가 민감하게 변화되어 왔다. 이에 따라 조선산업 안정화를 위한 지역社会의 역량 집중과 함께, 단순한 조선 생산기지 차원을 넘어 교육, 문화, 여가, 보건 등 사회·문화적 인프라를

겸비한 자족형 산업도시 발전에 대한 비전이 필요하다.

둘째, 일본의 조선산업 구조조정은 업계 내부의 경쟁구조 조정과 건조체계 재편을 목적으로 업계간 업무 제휴나 계열화 등을 통한 집적화와 분업적 생산체계가 형성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조선소의 입지 재편이나 고용조정이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다. 지역사회 협력구조는 민관협력기구가 중심이 되어 구조조정에 따른 충격을 조정하고, 지역기업 육성, 대체산업투자, 고용승계, 공장부지의 공영개발 등을 통하여 기업-지역사회 의 공생적 협력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쟁력 약화, 과잉투자·과잉설비, 부실경영, 외환 위기 등 기업의 생존차원에서 구조조정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기업간 분업체계나 지역사회 협력구조가 약하다. 이에 따라 조선관련기능(조립대기업, 협력업체, 기자재업체, 철강·기계업체, 연구기능, 관련 공공기관 등)이 집적하고 있는 동남권 지역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기업간·지역간 분업적 협력체계 구축과 지역 협력업체의 자생력 강화, 지역 네트워크 강화, 지역사회 협력활동 강화 등을 통한 지역사회 협력구조 구축이 요구된다.

셋째, 우리나라 조선산업도시의 협력구조는 기업과 지역사회의 유기적 협력구조가 구조조정 이전에 뿌리내린 일본의 경우와는 달리, 사회 민주화와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사회의 위기의식에서 출발하여 개별주체의 내부 시스템이 불완전하고, 다른 영역간 권력관계 또한 불균형적이고 일방향적 구조를 이루고 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생산영역간 수직적 연결고리는 확고하지만, 지역주민의 실제적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 생활영역은 대규모 조선 생산영역에 포섭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산업도시 공동체 구조는 강력한 구조조정에 따른 생산시설의 이전이나 대규모 인력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발언권은 최소화될 수밖에 없으며, 기업 또한 지역사회의 역량을 생산 효율성에 연결시키지 못함으로서 경쟁력 강화에 장애가 되고 있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 공공기관, 지역주민, 지역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생산영역과 생활영역을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지역사회 협력구조로서의 로컬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적 협의구조는 지역사회의 응집력을 강화하고,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사회의 충격을 완화·조정하는

데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지역의 역량이 강화되고 있는 오늘날,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영역에 있어서도 주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의 실정에 맞는 산업환경 조성이 요구되고 있다. 대기업의 지역협력은 일시적인 선심성 전략보다 조선소 현장의 의사결정권 강화, 지역업체와의 분업적 생산체계 강화, 시민사회의 인프라 제공, 지역사회 협력활동 강화 등 장기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지역사회 또한 대기업을 단순한 의지나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지역발전을 위한 파트너라는 인식 전환을 통하여 이해와 협력의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기업-지역사회의 유기적 협력구조는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건전한 시민문화 형성에도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지방 산업도시에 있어 대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기업-지역 사회 협력구조에 대한 시론적 연구이다. 따라서 타산업이나 타지역과의 비교 연구를 통한 일반화에 대한 논의나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사회 협력구조의 메커니즘에 대한 논리적 추론에 있어 다소 한계가 있었다. 향후 연구에서 다양한 비교연구를 통한 일반화와 로컬 거버넌스에 대한 심층적 논의를 통한 지역사회 협력 프로세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 註

- 1) 삼성·대우조선과 조선협력업체 직원은 2만 3,000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의 전체 임금은 연간 1조 2,000억원 정도, 월평균 1,000억원 정도에 이르고 있다(동아일보, 2001. 6. 25.).
- 2) VLCC(Very Large Crude Oil Carrier)는 17.5만DWT~30만 DWT의 대형 유조선을, ULCC(Ultra Large Crude Oil Carrier)는 30만DWT급 이상의 초대형 유조선을 의미한다.
- 3) 일본 운수성에서 20만DWT를 기준으로 그 이상은 대형업체 가, 그 이하는 중소형업체가 분할하여 생산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한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구조는 1970년대 후반 붕괴되기 시작했다.
- 4) GT(Gross Tonnage)는 용적톤(Capacity Tonage)로서 선각으로 둘러싸여진 선체 총용적으로부터 상갑판 상부에 있는 추진, 항해, 안전, 위생에 관계되는 공간을 차감한 전용적(全容積)이고, DWT(Deadweight Tonnage)는 선박이 적재할 수 있는 화물의 중량인 재화중량 톤수이다(한국조선공업협

- 회: <http://www.koshipa.or.kr/>).
- 5) 1990년 이후 버블경제 붕괴로, 일본의 전체 제조업체 수는 1990년 72.9만에서 1995년 64.4만 업체로 연간 11.7% 감소하였고, 종업원 수는 같은 기간 1,179만 명에서 1,088만 명으로 연간 7.7% 감소하였다(富樫幸一, 1998).
  - 6) 현재 일본에는 7개의 대규모 조선소가 제휴나 통폐합을 통하여 三稜, 日立+NKK(통폐합, LNG선 수주사 NKK가 日立에 기술제공), IHI+川崎+三井(상선부문의 수주·설계 협력, 공동출자한 독립회사 설립), IHI+住友(합정부문 공동 출자회사 설립, 건조설비는 IHI 합병) 등 4개의 집단체제로 재편되어 가고 있다.
  - 7) 1999년부터 시작된 일본 조선 대기업의 축소지향구조의 대표적 사례로 三稜重工業은 인력 1,000명(20%) 감축, 수주 및 매출계획 축소, 조업단축, 日立造船은 2개 공장과 인력 1,250명 규모의 분사화, 총인원 11% 감축, 관리부문 분사화, 川崎重工業은 사업본부 재편, 조선사업부문 분사화, 三井造船은 조업단축, 사외인력 감축 등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 8) 삼성조선의 경우, 1995년과 2003년 거제지역 협력업체 수는 113개(전체의 8.6%)에서 155개(10.3%)로, 거래규모는 148,299천 \$(22.2%)에서 349,698천 \$(22.9%)로 증가하였다(삼성조선 사내자료).
  - 9) 1980년대 후반 조선산업 합리화조치가 실시되기 전인 1984년 삼성조선의 전체 종업원은 6,530명이었지만, 1992년에는 3,284명(50.3%)으로 감소하였다. 이에 따른 인구감소, 짐값·전세값 폭락, 관련 기업·산업의 연쇄부도 등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격심한 동요를 경험하였다.
  - 10) 거제지역은 전체 면적의 70%가 한려해상국립공원, 자연환경보전권역, 수산자원보전권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공장 부지의 확보에 어려움이 크다(거제시청 면단자료). 삼성조선은 사내의 공장부지 부족문제 해결을 위하여 시의 지원으로 1994년과 1995년 인근의 한내지역(15,000평)과 성내지역(16,000평)에 각각 90억원과 187억원을 투입하여 협력업체 전용공단인 '삼성조선협동화단지'를 조성하여 전체 25개 사(종업원 900명 정도)를 입주시켰다(우연섭, 2004).
  - 11) 밸리스트 용수란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해 출항 전 빈 배의 밑바닥에 채우는 물을 말한다. 선박을 통한 국제적 교류가 빈번해지면서 배를 통해 옮겨진 생물들이 고유 생태계에 혼란을 초래하거나 환경문제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 文獻

- 거제시(군), 1973-2003, 거제시(군) 통계연보, 거제시(군).  
구승희 역, 1996, 트러스트: 사회도덕과 번영의 창조, 한국

경제신문사(Fukuyama F., 1995, *Trust :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NY: Free Press).

김상대, 1999, "거대 조선업체 지방입지가 지역노동계에 미친 영향," *사회과학연구*, 17(1), 경상대학교, 225-250.

김선배 · 정준호, 2001,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지원서비스의 효율적 확충방안, *연구보고서*, 456, 산업연구원.

김용구, 2000,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사회적 반응으로서의 발전과정과 기업지배구조의 윤리성과 정당성으로의 진화과정," *연세경영연구*, 37(2), 205-249.

김주환, 1999, "한국 '발전국가'에서의 국가-기업 관계와 '지원-규율' 테제: 조선산업 3대기업(현대조선, 대우조선, 삼성조선)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15(2), 143-172.

김창남, 1997, "부산지역산업의 구조분석과 구조조정에 관한 연구," *경영논총*, 18, 111-140.

대구경북개발연구원, 1996, 지역개발과 포항제철의 지역협력방안, 대구경북개발연구원.

신용철, 1995, "시멘트공업이 지역에 미친 영향," *대한지리학회지*, 30(1), 16-34.

박번순, 2004, "중국의 부상과 동아시아의 대응," *CEO Information*, 467, 삼성경제연구소.

염미경, 1998, 일본 기업도시의 재구조화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우연섭, 2004, 한국 조선산업의 발달과 하청협력 네트워크의 공간 특성,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유성종, 2002, 철강산업의 입지에 의한 지역변화: 광양지역 사례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상민 · 최인철, 2002, 재인식되는 시업의 사회적 책임, 삼성경제연구소.

이상석 · 이정록 · 김종성, 2001, "기업의 지역사회 공헌활동에 관한 경제지리학적 논의," *한국경제지리학회지*, 4(1), 1-16.

이철우 · 박양춘 · 박규택, 1999, "대구 섬유산업의 재구조화와 지역경제 발전 전략," *대한지리학회지*, 34(2), 155-175.

임정덕, 1992, "산업구조조정과 지역노동시장의 변화: 부산의 신발산업을 중심으로," *노동경제논집*, 15, 265-301.

전영옥 · 박재룡, 2004, 도시발전과 기업의 역할, *CEO*

- Information, 삼성경제연구소.
- 정구현, 1996, “한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공헌활동,” *연세경영연구*, 33(2), 233-251.
- 조형제, 2000, “울산 지역의 산업구조조정과 테크노파크 건설,” *사회과학논집*, 101, 229-247.
- 최봉, 2001, 조선산업, 삼성경제연구소.
- 최숙희, 2004, 원원전략으로서의 사회공헌활동 현황과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 한국조선공업협동조합, 1998, 조선조합50년사, 창보문화사.
- 한국조선공업협회, 1995, 조선산업개관, 창보문화사.
- 한동우·하연찬·문순영, 2003, 사회공헌활동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사랑의 열매.
- 한표환, 1999, “도시간 협력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시론적 연구,” *한국행정학보*, 33(3), 345-362.
- 關満博, 1996, “産業地域空洞化とマニュファクチャリングミニマム,” *經濟地理學年報*, 42(4), 55-69.
- 館逸雄 編, 1981, 巨大企業の進出と住民生活-君津市における地域開発の展開, 東京大學出版會.
- 關満博·岡本博公 編, 2001, 挑戰する企業城下町, 新評論.
- 堂野智史, 1992a, 再構築される企業空間, 山川充夫·柳井雅也 編著, 企業空間とネットワーク, 大明堂, 123-136.
- 堂野智史, 1992b, “わが國造船業の立地再編に關する一考察,” *經濟地理學年報*, 38(2), 37-54.
- 都丸泰助·滝田暁子·園藤宏一 編 1987, トヨタと地域社會, 大月書店.
- 鷹嶋洋, 2004, “四日市地域における石油化學コンビナートの再編と地域産業政策,” *經濟地理學年報*, 50(4), 22-36.
- 富樫幸一, 1986, “再編すすむ石油化學コンビナート,” *地理*, 32(6), 58-68.
- 富樫幸一, 1998, “産業再編に伴う立地變動と地域政策の課題,” *人文地理*, 50(5), 46-65.
- 小田宏信, 1998, “グローバル化時代における日本の産業集積,” *經濟地理學年報*, 45(4), 27-41.
- 佐藤明, 1997, “世界の造船メーカー-國際競争力の分析,” *財界觀測*, 12, 160-180.
- 杉浦勝章, 2001, “1990年代における石油化學工業の産業再編と立地再編,” *經濟地理學年報*, 47(1), 1-18.
- 村上雅康, 1985, “特定船舶製造業設備處理に關する一考察,” *經濟地理學年報*, 31(3), 42-57.
- 和田八東, 1968, 企業都市の性格と地域經濟, 都市問題研究, 18(6).
- Carroll, A. B., 1989, *Business and Society : Ethics and Stakeholder Management*, Cincinnati: South-Western Publishing.
- Clark, G. L. and Wrigley, H. A., 1997, Exit, the firm and sunk costs-reconceptualizing the corporate geography of disinvestment and plant closure,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1(3), 338-358.
- Jezielski, L., 1990, Neighborhoods and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Pittsburgh, *Urban Affairs*, 26, 217-249.
- MacKinnon, D., Cumbers, A. and Chapman, K., 2002, Learning, innovation and regional development: a critical appraisal of recent debates,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6(3), 293-311.
- Sayer, A. and Walker, R., 1992, *The New Social Economy*, Blackwell.
- Stafford, H. A., 1991, Manufacturing plant closure selections within firms,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81(1), 51-65.
- Yeung, H. W., 2000, Organizing ‘the firm’ in industrial geography I : Networks, institutions and regional development,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4(2), 301-315.
- Yeung, H. W., 2001, Regulating ‘the firm’ and socio-cultural practices in industrial geography II,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5(2), 293-302.
- <http://www.shi.samsung.co.kr/>
- 교신 : 우연섭, 660-767, 경주 진주시 신안동 신안주공 1차 APT 104-701(happywys@hanmail.net, 전화 : 055-746-7491)
- Correspondence : Youn-Sub Woo, 104-701, Jugong APT. Sinan-dong, Jinju-Si, Gyeongsangnam-Do 660-767, Korea(happywys@hanmail.net, Tel : 055-746-7491)
- 최초투고일 05. 7. 8  
최종접수일 05. 9. 14